



프로야구 흥행, KIA에게 물어봐!

KIA의 신바람 행진이 이어지면서 무등경기장야구장에는 더위를 잊은 야구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KIA와 삼성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야구장에는 구름 관중이 물리면서 시즌 13번째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야구팬 '6,000원의 행복'

(일반석 입장료)



무등경기장 울들어 13번째 관중 만원 사례

KIA 상승세 힘입어...지난해보다 32% 급증

점점더워도 광주의 뜨거운 야구 열기를 막지 못했다. 2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14차전이 열린 무등경기장야구장에 1만3천400관중이 찾아 시즌 13번째 만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매진 기록은 지난 1995년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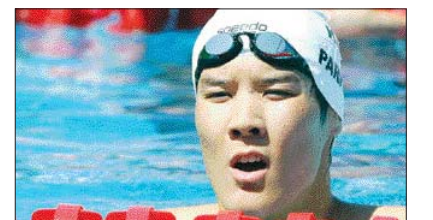
9번째. 무등경기장야구장에는 2일까지 39만2천829명의 관중이 다녀갔다. 이미 지난해 총관중수인 36만7천794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5천838명을 기록했던 평균관중수도 32% 증가해 8천539명까지 경총 뛰어올랐다.

무등경기장에 구름관중이 찾아 이날 프로야구는 역대 3번째 최소 경기(378경기) 400만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전제 523경기 중 374경기가 진행된 1일 총 관중 398만2천259명(평균 1만648명)을 기록하며 4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던 프로야구는 2일 무등경기장의 만원 사례에 힘입어 4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이번 기록은 540만명의 관중몰이를 하면서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했던 1995년(344경기), 372경기 만에 400만을 돌파했던 2008년에 이어 역대 최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의 반성

"처음부터 다시 시작"... 훈련 계획·방법 전면 손질

월드 챔피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20·단국대)에게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충격 그 자체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회 2회 연속 금메달을 내다보는 박태환으로서 훈련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처지가 됐다.



서 3관왕에 오른 직후부터 전담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훈련해왔다. 그 사이 2007년 멜버른 세계 대회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거꾸 금메달을 따다. 올림픽이 끝나고 지난해 10월에는 SK텔레콤 박태환 전담팀이 출범했다. 그런데 이번 전담팀에는 전담코치가 없었다. 박태환은 전담팀과 올해 두 차례 미국 전지훈련을 하면서 데이브 살로(미국)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국내에 머물 때는 태릉에서 노민상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했다.

박태환도 지난 1일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예선 탈락하며 대회를 마감하고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던 같다"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대표팀에 처음 뵙던 중학교 때 시절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담코치 없이 꾸려져 온 전담팀의 한계와 대표팀과 전담팀 사이의 유기적이지 못했던 공조 체계 등 속으로 끓었던 상처를 꺼내 치료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대한수영연맹과 전담팀은 이번 대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향후 훈련 방법 및 계획, 전담코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일단 전담코치 체제의 필요성은 연맹이나 SK텔레콤 스포츠단이나 공감한다. 정일청 연맹 전무는 "외국인 전담 코치를 두더라도 태릉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로 전지를 떠나면 노민상 감독이 동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찬호 5경기 연속 무자책

닷새 만에 등판한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삼진 2개를 잡아내고 5경기 연속 무자책점 행진을 펼쳤다.

박찬호는 2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경기에서 0-2로 뒤진 8회말 등판,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지만 큰 위기 없이 이닝을 마쳤다.

박찬호는 첫 타자 랜디 윈에게 심커를 던져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산뜻하게 시작했다. 이어 파블로 산도발을 볼넷으로 내보내고 벤지 몰리나에게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아 1사 1,2루에 몰렸지만 트레비스 이시카와를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한 뒤 대타 에드가 렌테리아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 선행 주자를 2루에서 잡았다.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5타수 1안타를 때렸다. 삼진을 2번 당했다. 1회말 1루수 실책으로 진루한 추신수는 3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

회 디트로이트 선발투수 릭 포셀로의 바깥쪽 높은 커브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포셀로의 시속 148km짜리 포시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클리블랜드는 연장 12회 볼넷 2개와 안타 한 개, 투수 보크로 2점을 내주면서 3-4로 졌다.



신지애가 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랑카셔에서 열린 2009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대회 3라운드 17번홀에서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의 뒷심

브리티시오픈 3R... 선두 매튜에 4타뒤진 공동 3위

신지애(21·미래에셋)가 2009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공동 3위로 뛰어올라 2년 연속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신지애는 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랑카셔의 로열 리덤 앤 세인트 앤스 링크스(파72.6천49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이며 이븐파 216타를 기록했다.

단독 선두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에 4타 뒤진 신지애는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최종 라운드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6번 홀(파4)까지 버디만 5개를 골라낸 신지애는 17번 홀(파4)에서 3m 정도 거리의 파퍼트를 놓쳐 아쉬움을 남겼다.

신지애는 "전날까지 드라이브샷이 좋지 않아 드라이버를 바꾼 것이 효과를 봤다. 코스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날 충분히 기회

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커가 많고 러프에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김초롱(25)은 이날 1타를 줄이며 1언더파 215타, 단독 2위에 올랐다. 17번 홀까지 이븐파를 기록하고 있던 김초롱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3.7m 거리에 붙이면서 버디를 뽑아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차 단독 4위를 달렸던 김승희(21)는 버디 3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에 2타를 잃어 1오버파 217타로 미야자토 미카(일본)와 함께 공동 5위로 밀렸다.

배경은(25)과 제인 박(22)이 나란히 2오버파 218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 한희원(31·힐라코리아)이 이날만 3타를 줄이며 박희영(22·하나금융)과 함께 3오버파 219타, 공동 11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